

# Global Interactions in the Early Modern Age, 1400-1800

Charles H. Parker

Cambridge: Cambridge University Press, 2010

## Introduction: The Global Integration of Space

\* 이 책은 근세(15-18세기) 유럽의 팽창이 아닌 근세 지역간 상호작용의 글로벌 팽창에 관한 논의임

- 근세 문화 간 조우와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이러한 조우의 영향을 밝히고자 함
- 몽골-티무르 제국 붕괴 이후 제국 간의 교류에 관한 논의
- 근세사를 글로벌 관점에서 보고자 함

\* 15-16세기 발견의 시대(대항해 시대) 이전에 이미 1250-1350년까지 약 100년간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서교류가 있었음

\* 발견의 시대 이전 역시 유럽제국의 팽창만 존재한 것이 아니며 오토만, 사파비드, 무굴 왕국 등 다른 이슬람 왕국도 등장했고, 아랍, 투르크, 페르시아 문화의 혼합도 존재했음

\* 동아시아에서는 명, 청 등의 제국이 존재했음 +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과 팽창 및 교류도 존재

\* 전체적으로 유럽의 팽창이 아니라 글로벌 팽창의 시대였음 => global cross-cultural interaction이 존재했음

\* 15-18세기: 근세(early modern)의 팽창은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19세기 이후 근대의 팽창과는 구별됨

- 근대의 제국주의와 달리 어떤 특정 지역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함

\* 근세의 제국건설은 네 가지 교류의 형태를 취함: 새로운 통상교역 네트워크, 대규모 이민, 세계적 생물학적 교환, 지식의 이전

\* 제국간 충돌과 협력의 시대 ->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글로벌 공간이 통합되는 시기임

### <Global Empire Building>

\* 13-14세기 몽골의 흥망이 근세 제국 등장의 공통 배경이 됨

\* 몽골의 쇠퇴기에 티무르 제국이 등장하고 이어서 티무르 제국이 쇠퇴하면서 팽창 지향의 아시아에 브레이크가 걸림 => 몽골-티무르 제국의 붕괴 이후 오토만 제국, 사파비드 제국,

무굴 제국 등이 등장함; 그러나 무굴(Mughal=Mongol) 제국은 몽골-티무르의 후손임을 자처함

\* 러시아, 중국 역시 몽골의 쇠퇴 이후 제국으로 흥성함

- 킵차크 한국(the Golden Horde; 金帳汗国 -> 이후 그 일부가 타타르를 구성)의 쇠퇴 이후 러시아 팽창; 1480년 모스크바 대공국의 독립선언과 팽창과 타타르의 축소
- 1368년 건국 이후 청은 북쪽 부족을 공격하고, 17-19세기 중앙아시아를 정복함 -> 청의 업적 -> 해양보다는 대륙으로 팽창함

\* 그리고 유럽에서는 몽골의 동방에 대한 호기심으로 교황과 군주로부터 여행자, 상인 등이 파견됨

\* 즉 몽골-티무르 제국의 붕괴는 =>

1. 광대한 3개의 이슬람제국의 건설, 2. 러시아의 동방팽창, 3.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, 4. 유럽의 동방여행자의 증가라는 4가지 현상을 가져옴

#### <Problems of Possibilities in the Early Modern World History>

\* 1960년대 이전까지 유럽 예외주의의 시각에서 근세사를 바라봄

-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 영미에서 역사학이 발전한 것을 생각해 보면 유럽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시기, 근대 정복의 시기에 이러한 시각은 자연스럽게 나타남
- 영미가 우월하면 발전의 최고 단계라는 의식이 근세사를 유럽 팽창사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남

\* 1960년대 이후의 변화

- 세계 각지의 대학에서 사학과가 생기고, 사회학 혹은 인류학 등 사회과학의 방법의 영향을 받게 됨
- 실제 근세사에서 유럽의 일방적인 영향력에 대한 거부와 타 지역 문명이 서구에 영향을 준 현상이 드러남 -> 시카고 대학교 이슬람사 연구학자 Marshal Hodgson
- 또한 종족과 사회를 관계사의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등장함 -> 문명을 자시봉쇄적인 범주로 보지 않게 됨
- 각 지역의 역사에 대한 비교연구가 등장하면서 동서양, 이슬람 지역 등에서 비슷한 패턴이 출현한 것을 보기 시작함 -> Victor Lieberman
- 접촉점, 연결점에 대한 연구가 등장함 -> 포르투갈인과 광동인의 접촉, 일본인과 중국인의 접촉, 인도인과 아랍인의 교류 -> Jerry Bentley

\* 처음에 근세는 유럽사에 국한하여 르네상스에서 산업혁명까지를 지칭하다가 1980년대 혹은 1990년대 초반 이후 비유럽 지역을 포함할 경우 1400-1800년도 대강 글로벌 역사의 차원에서 근세라고 부르기 시작함 <- 유럽과 비유럽의 접촉에 초점을 둘 때 이러한

- 그래서 '명청 중국' 대신 '근세 중국' 등으로 부름

- 그래서 '근세'라는 명칭은 유럽중심의 명칭에서 이제는 그 반대로 세계사에 적용될 경우

일련의 글로벌한 과정을 의미함(예: 글로벌 해양 경로의 창조, 세계경제의 탄생, 세계인구의 성장 등)

\*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주제 -> “the extraordinary rise of powerful empires inaugurated a series of sustained interactions that brought societies around the world into interdependent relationship.

## Chap. 6. The Transmission of Religion and Culture

\* 18세기말까지 글로벌 교류로 인해서 보편적 형태의 지식이 등장함;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의한 변용도 이루어짐

<The Spread of Universal Religious Systems: Christianity and Islam>

\* 글로벌한 교류 속에서 기존 종교를 변용하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나타나기도 하고(예: 불교의 일부를 수용하여 인문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내세적인 신유교의 등장), 근세에 특정 종교가 다른 지역으로 팽창해 들어가기도 함(불교의 만몽 진출, 시크교의 북인도 진출, 시아파의 이라크 진출 등)

- 그 가운데도 세계 종교로 확대된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임

### 1) Islamicization: the First Wave

\* 제국 건설, 통상, 선교 등을 통해서 이슬람이 근세에 이르러 유라시아의 세계종교가 됨

\* 수파비드, 무굴, 오토만 제국 등의 팽창과 함께 이슬람이 전파됨

\* 이란은 시아파가 사파비드 제국의 샤(Shah)에 의해서 급격히 득세하면서 수니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기독교인 박해

\* 무굴제국은 정통 수니를 중심으로 이슬람화를 진행하는데,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힌두, 시크 등에 대해서 다원주의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추구함; 그러나 이후 Jahan, Aurangzeb 등의 후대의 샤는 악바르(Akbar)의 초기 관용적 정책을 역행하여 이슬람과 힌두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킴

\* 이슬람의 확산의 상인이 주도한 인도양 상권의 형성에 있었음 -> 상권의 형성('trade diaspora')에 따라서 수피 지도자(Sufi master)들이 상인을 따라 이슬람을 전파함 -> 상업적 이익에 따라서 각 local의 지도자들이 이슬람 포교에 관용적인 입장을 취함 -> 해안지대 동남아에 이슬람이 깊숙이 침투함(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)

\* 이후 스페인,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로 이슬람 토착세력과 기독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토착인의 유럽에 대한 저항이 강화됨

\* 17세기 중반 화란 동인도 회사 이후 이러한 갈등이 줄어들음 -> 화란은 기독교화를 강요하지 않았음

\* 사하라 이남의 수단 등 아프리카의 상황 역시 아랍인과의 교역에서 시작되었으며 동남아의 경험과 유사함 -> 토착 민간 종교와 혼합된 양상을 보임

\*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경우 모두 수피(Sufi)라는 무슬림 신비주의파(Sufism) 선교사의 역할이 컸음 -> 절충주의를 구사하면서 토착 종교관행, 토착 성인 등을 받아들여 각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고 제자를 키웠고, 이슬람 정통교리를 고집하지 않음: accommodating and syncretistic <-> 예수회 선교사와 다름

## 2) Christianization: the First Wave

\* 기독교의 글로벌 확산은 16-17세기 유럽의 종교전쟁의 결과로서 나타남

\* 에라스무스, 모어, 루터, 칼빈 등이 저항으로 형성된 개신교는 로마 교황청에 대항했고, 로마 교황청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17세기까지 유럽은 종교 갈등에 휩싸임

\* 그 결과 강력한 선교 열정이 생김 -> 개신교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, 캐톨릭은 교회의 권위회복과 신교에 대항을 목적으로 함 -> 유럽 자체가 선교의 장이 됨

\*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슬람에 대항해 온 이력으로 이러한 선교 열정에 더욱 불타게 됨 -> 신세계의 개척을 더 넓은 세계에 기독교를 확산하라는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임

\* 스페인 등 캐톨릭 국가는 왕실이 직접 선교에 나서 적극적이었고, 영국 등은 사적 회사가 선교를 담당함 -> 사적 회사들은 선교보다는 수익에 더 주안점을 두게 됨

\* 당시 캐톨릭이 훨씬 더 많은 설교자와 교단을 지니고 있어서 해외 선교에 적극적임 -> 프란치스코, 도미니코,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수도회, 예수회, 우르술라 수녀회 등 -> 이들이 스페인, 포르투갈의 정복과 함께 식민지에 투입됨

\* 식민지에 대한 본국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식민지 교회조직의 유럽 캐톨릭화가 진행됨 -> 유럽 식민지인에 대한 목회와 선교가 우선시되고 토착인 개종은 2차적 관심사가 됨 -> 많이 살육한 결과 far fewer souls to save!

- 다만 예수회(the Reductions -> 예수회의 한 분파인듯)는 남미의 우루과이, 파라과이에 서 파라니 토착민과 융합하는데 성공하여 식민모국의 노예상인 등을 비판하였으나, 식민모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협정으로 18세기 중반 소멸됨(영화 Mission을 상기하면 됨)

\* 한편 콩고, 필리핀, 일본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선교사가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지역을 제외하고 기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활동의 이미 존재해 있던 국가로 인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 현저하게 제한을 받음

\* 그러나 필리핀에서의 성공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1549년 예수회 신부 Francis Xavier에 의해서 기독교가 일본에 소개된 이후, 16세기 오다 노부나가의 후원 아래 성장하

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탄압됨; 그 이후 힘을 발휘하지 못함

\* 중국의 경우 1580년대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는 기독교가 유교 고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국어 구사력과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중국 지식층과 교류함

\* 그러나 18세기 중국의 유교관습과의 충돌로 기독교는 주변적인 지위에 머물게 됨

\* 개신교 선교사는 영국 및 화란의 제국 건설자 및 정착자들과 함께 움직임 -> 그러나 캐톨릭 교도보다 활동도 적고 효과적이지 못했음 -> 19세기와 20세기에 가서야 대규모 선교행렬이 등장함

\* 근세 개신교 선교사는 개종보다는 식민지인들의 예배에 필요해서 건너감 -> 예컨대 화란의 경우 동인도 회사(the Dutch East India Company (Verenigde Oost-Indische Compagnie or VOC))를 중심으로 움직임

\* 영국은 북미에서 활동하면서 식민지인을 위해 선교사를 파견하지만, 일부는 인디언의 개종에 힘씀 -> 존 엘리엇의 알로킨 인디언 선교 -> 그러나 1675년의 필립왕 전쟁 이후 이러한 노력이 사라지다가 18세기 초반 대각성 운동 이후 다시 인디언에 대한 선교사업이 시작됨

\* 전체적으로 아시아, 아프리카, 아메리카에서의 선교는 토착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짐: 토착종교의 수단, 토착과의 혼종, 완전한 개종으로 인한 박해

\* 이들 선교는 또한 점진적,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토착 세력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여 혼종의 경향을 보임: 유학자 복식의 마테오 리치 <-> 개신교의 경우 유럽화를 먼저 채택하기를 권하여 비타협적 개신교의 수용을 강조함; 유럽화 없는 개종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

\* 결론: 이슬람과 기독교는 제국 건설, 통상 네트워크의 구축, 그리고 토착관습과의 타협을 통해서 뿌리를 내림

### 3) Orthodoxy vs. Accommodation: The Second Wave

\* 18세기에 들어서서 이슬람과 기독교에서 각 지역 토착종교와의 타협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등장하면서 근본주의 물결이 등장함 -> 수피와 예수회 선교사의 타협주의, 허용주의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됨

\* 이슬람의 경우 18세기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슬람 개혁운동이 전개됨 -> 선지자 모하메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등장함

\* 와하비즘의 등장: 알 와하브는 이븐 사우드(아라비아의 시조)의 비호 아래 선지자와 샤리아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근본주의를 강조하며 아라비아를 통일하고 당시의 지배세력이 오토

## 만과 대립

- \* 이후 아프리카 수단 등에서 근본주의를 전파하여 절충주의 지배층에 대해서 근본주의 민초들이 저항하는 계기를 마련함
- \* 개신교의 캐톨릭 타협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격에서 캐톨릭 역시 16세기 중반부터 개혁주의 노선을 시작함; 통합주의(syncretism)는 캐톨릭의 관행이었음
- \* 그러나 절충주의적인 예수회에 대한 도미니코 수도회의 비판이 로마에 지속적으로 전달되자 18세기 초반 클레멘트 11세는 통합주의를 아시아, 인도지역에서 근절하기 위해서 드 투르농을 파견하여 정통적이며 표준화된 캐톨릭 의식을 강조함
- \* 그러나 여전히 아메리카, 아프리카 등지에서 토착성인 숭배, 동물제사, 일부다처 등이 절충주의의 형태로 진행됨
- \* 전체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초기전파는 수피즘과 예수회 등에 의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해 절충주의, 통합주의로 진행되다가, 이들 피전파 지역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신자가 늘어나면서 정통주의가 통합주의를 견제하는 현상이 나타남

## <Construction and Knowledge>

### 1) Ethnography(민속지학)

- \* 이전 시대와 달리 근세의 민속지는 실제 다른 민족과 사회 속에서 겪은 것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룸
- \* 아시아인의 민속지(예: 청 건륭제 당시 묘족에 대한 글들; 토쿠카와 막부의 아이누에 대한 기록; 오토만의 Levni와 켈레비 등)는 왕실의 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지만, 유럽인의 민속지는 그 배경이 다양함
- \* 유럽의 경우 왕이 총독에게 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하고, 특별한 사람을 지명하여 특정 지역을 조사하도록 하기도 하며, 개별 민속지학자가 특정지역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혹은 토착인에 대한 정복자의 폭정을 알리기 위해 적기도 함
- \*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민속지는 모두 타자를 알자는 취지에서 그들의 잔혹성 혹은 그들의 매력을 적는다는 공통점을 보임
- \* 유럽의 경우 처음에는 비유럽지역을 비문명화된 지역으로 기술하다가 서서히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세계로 묘사함
- \* 이러한 타자에 대한 기술은 타자에 대한 호감도/비호감도의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:

유럽의 중국에 대한 인종주의적 서술 등

## 2) Cartography and Astronomy

- \* 근세에는 지도제작과 천문학 역시 발달함: 정확한 지도의 제작과 천체의 관측에 대한 요구가 있음
- \* 지도의 경우 문화간 교류 현상이 발견됨: 이희의 강리도 -> 일본, 중국에 영향 -> 중국의 지도가 다시 한국의 여지 전도에 영향을 줌
- \* 또한 오토만 제국은 과거 이슬람의 과학전통에 유럽의 지도지식(박해를 피해 온 유대인에 의해 전달됨)을 더해서 다양한 지도를 만들어 냄
- \* 중국은 국가대사를 천체의 기운이 좋은 절기를 택해 행하므로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는데, 예수회의 아담 샬 등이 유럽의 천문학 지식을 전후해 청황제의 호의를 사게 됨
- \* 그러나 중국은 천동설과 평평한 지구를 믿고 중화주의적 생각으로 인해 지동설과 등군 지구, 그리고 중국을 중심에 두지 않는 유럽의 지도학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음 -> 마테오 리치는 이를 알고 중국 중심의 지도를 황실에 보여줌 -> 19세기까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함-> 중국 고유의 광역도가 여전히 중심이 됨
- \* 한편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유교의 합리성, 상호존중, 공통체 복지 등을 개념을 수용하면서 기독교의 위계적 질서를 깰 수 있는 것으로 수용함(볼테르, 케네 등)
- \* 유럽과 중국의 각자의 필요에 맞추어 상대방의 지식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임

### <Religious and Intellectual Interconnections>

- \* 이슬람과 기독교의 세계 종교로의 발전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토착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짐
- \*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세계종교로 되는데,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주의와 절충주의가 등장하고, 이때 종교의 원천지가 정통주의를 개혁의 이름으로 주장하면 갈등이 발생함
- \* 과학과 지식 역시 상호교류의 과정을 거쳤으며, 이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수용되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근대성을 높임